

속기세  
SINCE 1970

2020  
제 56호



대한속기협회



## 목차

2020 속기계 제56호

### 4 머리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 이주성

### 6 인사말

확실한 변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 김덕진

### 8 안녕! 우리말

꼭 가려 써야 할 일부어 두 용어 - 이서진 기자

### 14 2019 이탈리아 인터스테노

2019년 제52차 INTERSTENO CONGRESS 참가 보고 - 국제부  
인터스테노 in 칼라리아, 진땀 흘렸던 시간 - 신현진

### 32 현장 스케치

2019 아퀼라컵 속기계대회

### 34 연구논문

비공개회의록 공표에 관한 연구 - 2019 의회기록발전연구포럼

### 50 기획탐방

속기역사관을 찾아가다! - 이보람 기자

### 56 기자수첩

회의록에 숨겨진 영국 학원의 이야기 - 김진주 기자  
페스트드래의 기록 - 홍상현 기자

### 67 세미나

제27회 한글속기학술세미나를 다녀와서 - 김수정

### 71 새내기 인사

오랫동안 꿈을 그리면 마침내 그 꿈을 날아 간다 - 김병진  
포기하지 못 것, 자신을 믿을 것 - 이기현  
모두의 협력 - 임수민

### 82 인터뷰

둔발송충(鈍脚驢)을 새기며 - 정순화, 정란

### 88 회원동산

소리 없는 파면에 자막으로 소리를 붙여 넣어 주는 교육속기사 - 차은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속기사에 대해 탐구하다! - 홍보루

### 100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2019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 104 협회동경

제53회 정기총회

### 106 편집후기

## 머 리 말

###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회장 이주성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아직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태는 힘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낍니다. 코로나 19에 맞서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밤낮 없이 감염병과 사무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헌신적 노력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대한속기협회는 속기문화의 연구 발전, 속기술의 보급, 속기인의 자질 향상, 기록보존과 공익에 봉사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속기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5년 설립되어 65년의 전통을 이어 온 대한민국 속기계의 본산이고 상징입니다.

협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합니다. 한글속기학술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연수 실시, 소식지·속기계 발간, 한글속기무료강습 실시,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를 거쳐 인터스테노 총회와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속기 전문학사 학위 과정인 부천대 스마트속기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속기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개관한 속기역사관은 속기문화를 보존하는 한편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여 속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록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한국속기학회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속기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를 작성 및 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회의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속기 전달 조직을 갖추는 의회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탐과 열정으로 이룩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어받아 대한속기협회가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가 언제나 선두에 설 것입니다. 함께 이겨 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주성







## 2019년 제52차 INTERSTENO CONGRESS 참가 보고

국 제 부



인터스테노가 창설된 지 133년째인 2019년 7월, 제52차 인터스테노 총회\*가 이탈리아 칼리아리에서 열렸다.

이번 제52차 총회에 대한민국은 김덕진 대한속기협회 이사장을 단장으로 총 12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기 간: 2019년 7월 11일(목)~7월 19일(금)

장 소: 이탈리아 (로마 · 칼리아리)

\* 인터스테노 창립총회는 1887년 9월 26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13개국에서 온 145명의 속기인들이 참석한 성대한 대회가였다.

14 대한속기협회

속기계 15

### ■ 참가목적

- 제52차 인터스테노 총회 및 IPRS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기록인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각국의 기록 시스템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수집
- 우리나라 기록 시스템과 회의록 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 속기경기대회 참가

### ■ 2019 INTERSTENO 총회 일정

날 짜	시 간	일 정
7월 11일(목)	12:00-16:00	이탈리아 상원의회 방문
	14:00-16:30	인터스테노 집행부 회의
7월 12일(금)	17:30-20:30	참가자 등록
	17:30-20:30	속기기계 전시회
7월 13일(토)	08:00-16:00	속기 관련 기계 전시회 (총회 기간 동안 지속됨)
	08:30-10:30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회의 1
	13:30	워드 프로세싱 경기
	18:00	제52차 인터스테노 총회 개막식
7월 14일(일)	07:30	텍스트 프로덕션 경기대회
	13:00	오디오 트랜스크립션 경기대회
	14:00-18:00	IPRS 주제 발표
	16:30	노트 테이킹 경기대회

16 대한속기협회

속기계 17

### 한국대표단(총 12명)

- 단장: 김덕진(협회 이사장, 국회)
- 대표: 정순화(협회 이사, 국회)
- 손석연(협회 이사, 한국스테노)
- 김점동(협회 감사)
- 김한우(협회 이사, 인터스테노 과학위원회 위원)
- 조미경(협회 이사, 국회)
- 김미영(협회 회원, 제주도의회)
- 허은영(협회 회원, 제주도의회)
- 김병수(한국스마트속기협회 회원)
- 경기대회 출전 선수
- 정지은(한국스마트속기협회 회원)
- 서정민(한국스마트속기협회 회원)
- 신현진(협회 회원, 국회)

### ■ 참가국 및 참가인원: 29개국, 500여 명

사무총장 데니(Danny Devriendt)의 보고(E-news 90호)에 따르면 이번 칼리아리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총회 참가비를 지불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29개국 399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개별 만찬행사에는 인터스테노 회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칼리아리 총회에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날 짜	시 간	일 정
7월 15일(월)	08:00	스피치 캡처링(SC) 경기대회
	11:30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RT) 경기대회
	16:00-18:00	회계위원회 회의
7월 16일(화)	09:00-18:00	콘퍼런스
7월 17일(수)	16:30-18:30	과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회의
	20:00	중앙위원회 만찬
7월 18일(목)	08:30-10:30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회의 2
	11:00-13:00	인터스테노 총회
	16:00-17:30	경기대회 시상식
7월 19일(금)	19:00	송별만찬
	08:30-19:30	카를로포르테심 방문

### ■ 제52차 INTERSTENO 총회의 주요 행사

#### 1. 이탈리아 상원의회 방문

○ 7월 11일, 대표단은 로마에 있는 상원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제52차 인터스테노 총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등 대표단들과 상원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였다.



이탈리아 상원의회 내의 세미나 장소 - 주제: 이탈리아 기록의 역사

## 2. 개막식

○ 칼리아리에서 열린 제52차 총회 개막식은 무대가 있는 대형 극장(Teatro Massimo)에서 7월 13일(토)에 개최되었다. 인터스테노 회장인 리안(Rian Schwarz-van Poppoel)에 의해 개회가 선언된 뒤 이어지는 무대행사는 카를로(Carlo Eugeni, 과학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 콘테스트(인터넷을 통한 국제 키보드 대회)에서 수상한 8명에 대해 시상식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전통춤과 무용을 선보여 참가한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다.



태극기를 들고 무대에서 인사하는 김덕진 단장

## 3. 중앙위원회 회의(Council meeting)

○ 중앙위원회 회의(Council meeting)는 인터스테노 집행부와 인터스테노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인터스테노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여기서 심의되는 안건들은 총회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제52차 칼리아리 총회에서는 중앙위원회 회의를 7월 1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회장 리안의 보고와 사무총장 테니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중앙위원회 회의장

○ 총회는 7월 18일(목) 사르데냐 제단(Fondazione di Sardegna) 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총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은 중앙위원회 회의(Council Meeting)에서 일차로 심의된 것들이다. 주요 사안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 중인 총회

- 회장 리안은 2017년 베를린 총회 이후 중앙위원들의 미팅 등 그간의 집행부의 인터스테노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 사무총장 테니는 인터스테노의 결산 및 향후 2년 동안(2020-2021)의 예산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였다. 회의는 37유로로 의결하였다.
- 명예회장과 명예회원에 대한 추대가 있었다. Jaroslav ZaviaČič(체코) - 명예회장 Waltraut Dierks(독일) - 명예회원
- 향후 2년간(2020-2021) 집행부에서 일하게 될 멤버 선출은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 사무총장 테니는 회원국의 대표를 국가별로 차례차례 호명하여 확인하였다.
- 회계위원회(auditing committee) 멤버는 추후에 3개국(슬로바키아, 네덜란드, 터키)의 멤버들 중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될 과학위원회 위원을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김한우 위원이 유입되었다.
- 일반적으로 차기 총회의 개최지를 결정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2년 총회

첫 번째 순서로 회장은 인터스테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칼리아리 총회를 준비하면서 인터스테노 임원진들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헤이그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였다. 2018년도에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던 중앙위원회 회의와 IPRS 미팅에 대한 심의(review)를 하였고, 차기 연도(2019-2021) 임원진에 대한 구상 및 2020년에 개최될 중앙위원회/IPRS 미팅의 개최지와 2021년도 총회 개최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이어서 사무총장인 테니의 사회로 안건 심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2018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중앙위원회(16개국 45명 참가) 이사회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차기 연도 예산 관련 회계보고 후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이 있었다. 심판위원장은 Georgette Sante(벨기에), 과학위원장은 Carlo Eugeni(이탈리아)가 연임하기로 하였다. 집행부 명단은 후술하는 "총회"편에 실기로 한다. 한편 2020년에 실시되는 인터넷 콘테스트에 대하여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등록은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2020년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의 개최지<sup>2)</sup>와 제53차 총회 개최지는 결정되지 못한 채 중앙위원회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 4. 총회(General Assembly)

○ 총회는 회원국 대표와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 등으로 구성된 인터스테노 내에서 최고 권위 있는 기구이다.

2) 2020년 중앙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하기로 집행부에서 2020년 1월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개최도시 후보지가 몇 나오기는 했으나 결정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 신입 회장(리안)의 미래 비전 제시
- 연임하게 된 회장 리안은 인터스테노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홍보하며 새로운 회원국가를 영입하고 음성인식 등 신기술을 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 마지막으로 사무총장 테니는 앞으로도 신입 집행부가 인터스테노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제52차 인터스테노 총회는 막을 내렸다.

## 5. IPRS(Intersteno Parliamentary and other professional Reporters' Section) Meeting

○ IPRS는 제40차 인터스테노 총회(1993, 이스탄불 개최)에서 창설된 조직이다. 창설 당시 의회속기사로만 구성된 조직체(Intersteno Parliamentary Reporters' Section)였으나 그 후 많은 기록 전문가 및 텍스트 캠퍼 조직들이 IPRS에 참여함에 따라 의회속기사부에서 확대하여 '의회 및 기록전문가부(Intersteno Parliamentary and other professional Reporters' Section)'로 명명하기로 2012년 2월 겐트(Ghent)에서 열린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다. IPRS는 속기 관련 신기술 및 직업 등 여러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터스테노 총회 및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7월 14일 개최된 IPRS 미팅의 주제발표는 회장이자 IPRS 코디네이터인 리안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세계 속기 흐름과 변화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 IPRS 미팅의 발제자 및 주제

발제자 (국가)	제1세션: Technology
Iulia Mihalache (캐나다)	윤리 및 기술: 기업은 새로운 툴(tool)을 개발할 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가? (Ethics and Technologies: Do businesses address ethical issues when developing new tools?)
Paolo Michela Zucco & Fabio Angeloni (이탈리아)	국제적인 미켈라 알파벳, 아직도 최신의 아이디어 (The international Michela alphabets, an idea that is still current)
Paolo Paravento (이탈리아)	디지털 번역에 대한 PerVoice의 기술적인 솔루션 (PerVoice technological solutions in diamesic translation)
우재호 (한국)	소리자바의 협력적 인공지능 솔루션 (Sorizava Collabo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olution)
발제자 (국가)	제2세션: Reporting Today and Tomorrow
John Vice (영국)	공식 기록물과 보도앵커지 (Official Reports and Body Language)
Eero Voutilainen (핀란드)	의회기록물에서 일상 언어와 편집의 선택 (Everyday linguistic and editorial choices in parliamentary reporting)
Henk-Jan Eras, Deru Schelhaas, Germ Sikma (네덜란드)	우리는 미래의 기록을 보았으며 그 이름은... - 2030년 의회 기록 (We have seen the reporting future and its name is... - Parliamentary reporting in 2030)

6. 콘퍼런스(Conference)

○ 콘퍼런스는 7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며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Michiel Haanen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원에서의 토론 자막 생방송 (Live subtitled of debates in the Dutch House of Representatives)
Tony Minichiello (영국)	하원의 절차: 접근 및 심의 (House of Commons Procedure: Access and Scrutiny)
Joel Snyder (미국)	오디오 설명: 의회 접근성에 대한 미래 관점 (Audio Description: future perspectives into parliamentary accessibility)

7. 속기경기대회 및 시상식

○ 인터스테노 속기경기대회는 총 7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흘(7월 13~15일) 동안 진행되었다.



경기대회 준비하는 선수들  
- 맨 뒷줄에는 AI 시스템으로 첫 출전하는 이탈리아 PerVoice사 출신의 Veronica

○ 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 22개국에서 온 206명으로 최연소자는 11세이고 최고령자는 80세였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38명, 개최국인 이탈리아는 29명, 체코 27명, 중국 24명, 헝가리 20명의 선수가 출전하였고 그 외 약 10개국에서는 5명 미만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 우리나라는 3명(서정민, 정지은, 신현진)의 선수가 실시간속기 경기대회(Real time speech capturing)에 출전하였다.

▲ 콘퍼런스 발제자 및 주제

발제자 (국가)	제1세션: Technology
Carlo Eugeni (이탈리아)	기록 및 캡션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 (Diamesic transl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for reporting and captioning disciplines)
Eero Voutilainen (핀란드)	의회 기록에 있어서 언어와 편집의 원칙 (Linguistic ideologies and editorial principles in parliamentary reporting)
발제자 (국가)	제2세션: Live subtitling
Giulia Torregrossa & Daniele Casarola (이탈리아)	오픈소스 시대의 이탈리아 속기 기계 (Italian shorthand machines in the open source era)
Rocio Bernabe Caro, Estrella Oncins & Pilar Orero (스페인)	실시간 자막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훈련 (Harmonised training in real-time intralingual subtitling)
Tatsuya Kawahara (일본)	자동 음성 인식을 사용한 자막 소프트웨어 (Captioning Software using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발제자 (국가)	제3세션: Stenography
Daniel Glassman (미국)	언어에 기반한 고급지능 프로그램 - Eclipse
Jianlong Xiao (중국)	인터넷 속기 기술의 도입과 장비 소개 (Application introduction and equipment display of internet stenography technology)
Jorge Bravo (아르헨티나)	속기의 역사 (The history of stenographic reviews in the world)
Boris Neubauer (독일)	국제 속기도서관 설립 방안 (Towards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library on shorthand)
발제자 (국가)	제4세션: Parliamentary accessibility
D'Arcy McPherson (캐나다)	기계속기와 기술협력 (Opening doors through legislation, machine shorthand and technological collaboration)

○ 이탈리아에서는 PerVoice사의 베로니카(Veronica Cerbaro)가 Verbatim Steno라는 기계를 가지고 새로운 실험 형식인 자동음성인식(ASR)과 라이브 편집으로 3개 종목(SC, AT, RT)에 출전하여 경기를 치렀다. 단 순위는 매기지 않았다.

○ 이번 속기경기대회는 지난 대회와 달리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당에서 각자의 헤드셋을 장착하고 혼합적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즉 PC-콘테스트(TP, TC, AT, WP) 선수들뿐만 아니라 음성 캡처 대회(SC, RT, Note taking)의 선수들이 한자리에서 시합을 치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프란체스카(Francesca Marchionne: 이탈리아 속기사)가 고안해 낸 훌륭한 아이디어 덕분이었다. 오디오 배급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각 선수들이 자신의 헤드셋을 꽂고 언어 채널을 선택하면 사전에 녹음된 오디오 파일(시합 문제)이 전송되는 것이다.

○ 대회 후 바로 채점 작업이 시작되어 당일 밤늦게까지 계속된다. 심판원들은 시험답안을 연령별(성인·청소년·아동 부문)로 구분·평가하는 작업을 한다.

○ 경기대회 시상식은 7월 18일 폐막식 행사와 함께 마시모(Massimo) 극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7개 종목별로 성인·청소년·아동 부문으로 구분하여 전체 33개 부문에 대한 수상자를 발표하고 1위·2위·3위(금·은·동)를 차지한 선수들은 시상대에 올라 수상하게 된다.<sup>3)</sup>



시상대에 오른 리얼타임 부문 수상자  
- 왼쪽, 한국의 정지은 속기사

3) 각 종목별 속기경기대회 결과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ntersteno.org/wp-content/uploads/2019/08/2019-Cagliari\\_Risultati.pdf](http://www.intersteno.org/wp-content/uploads/2019/08/2019-Cagliari_Risultati.pdf)



○ 이번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 경기에서는 미국에서 1위(Julianne LaBadia)와 3위(Deanna Boenau)를 하였고, 우리나라의 정지는 속기사가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정민 선수는 5위, 신현진 선수는 10위에 올라 한국 선수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시상식 후 한국대표단은 수상의 기쁨과 이별의 아쉬움을 안고 송별만찬장으로 향하는 대형버스에 올랐다.



송별만찬장에 모인 400여 명의 각국 대표단

### ■ 주요 시사점 및 성과

- 인터스테노 총회는 전 세계에 한국의 속기계와 기록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장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제35차 인터스테노 총회(개최지: 스위스 루체른)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대회 출전 종목의 다변화를 꾀하고 IPRS 미팅이나 콘퍼런스에서 한국 속기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속기경기대회의 리얼타임(RT) 종목에서 한국이 은메달(2위)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속기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 이번 속기경기대회에는 자동음성인식기술(ASR: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이 실험적으로 첫 출전하였다. 이탈리아의 PerVoice사에서 베로니카(Veronica Cerbaro)가 Verbamatic Steno라는 기계를 가지고 3개(SC, AT, RT) 종목에 참가한 것이다. 순위를 내지는 않았지만 베로니카는 스피치 캡처링(SC) 종목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어(15분 실시, 분당 497자, 오류 4자) 신기술 도입 및 활용에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음성인식기술이 기록 분야에 도입되더라도 그 기술을 다루는 속기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기술을 대하는 세계 속기계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인터스테노 in 칼리아리, 선물 같았던 시간

신 현 진

칼리아리. 낯설고 생소하기만 했던 이 이름이 이제는 기억 한면에 강렬하게 자리 잡아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생소했던 그 이름 때문이었는지 인터스테노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아득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경기대회 선수로 선발되어 지금은 추억으로 남은 그 아름다운 도시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속기사들이 참여하는 속기협회 세미나도 아직까지 늘 새롭고 설레는데 전 세계의 속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 경기대회에 대한 부담감은 잠시 잊고 기대와 설렘으로 잔뜩 부른 가슴을 안은 채 로마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동안의 장시간 비행 후 도착한 로마! 로마 시내의 건물들이 대부분 저층인 탓에 그늘이 없어서 행복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 준비 단단히 해야 할 거라고 당부했던 가이드의 말처럼 한여름 로마의 열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탈리아 상원 방문 전에 로마 시내에 있는 유적지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도보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꽤나 힘든 일정이었지만 사진에서나 보면 콜로세움, 진실의 입 등등 웅장한 유적지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말 고대했던 이탈리아 상원 방문 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강렬한 햇빛도 따사롭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상원 방문을 그토록 고대했던 이유는 인터스테노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영광과 함께 이탈리아 의회 관계자로부터 이탈리아 속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 마침 상원 본회의가 열려 본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까지 모두 제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원 앞에서 잠깐의 대기 시간을 갖고 간단한 설명과 함께 상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소지품을 맡기고 본회의장을 참관하도록 되어 있었고 본회의 진행 중엔 상원 의원들이 방청석에 있는 인터스테노 대표단에게 환영의 인사를 보내 주기도 하였는데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참관하는 내내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속기사들을 보면서 고대는 언제쯤 하는지, 키보드 모양은 어떤지 관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이후에는 의회 관계자가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탈리아 속기의 발전과 역사 그리고 의회속기록 작성에 관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해 주었습니다.



로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인터스테노 총회가 열리는 칼리아리로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했는데 개막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속기'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또 그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데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대망의 경기대회는 일정 6일 차에 치러졌습니다. 속기자적중 시험, 국외 입사 시험까지 슬한 시험을 치러 왔지만 그날은 왜 그렇게 떨리던지 아마도 한국 대표



로 참가했다는 사명감이 저도 모르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같이 참가하게 된 한국 대표 선수들과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했지만 대회 날에 느껴지던 긴장감과 중압감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렇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격려해 주셨던 한국대표단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대회 내내 든든했고 덕분에 대회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주최 측에서 마련한 유적지 투어가 있었습니다. 바루미니에 있는 '누라기'라는 돌탑 유적지인데 한국에서부터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투이 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경기대회 전부터 유적지를 보러 갈 생각에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누라기는 청동기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독특한 돌탑이라고 합니다. 1997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팽활한 대지 위에 세워진 정교한 돌탑의 웅장함이 경기대회를 치르느라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듯했습니다. 경기대회 직후에 흥분한 마음으로 바루미니에 와 있으니 머릿속까지 뻗 들어오는 느낌이었고 저에게는 정말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10개국에서 온 발표자들이 의회속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단들은 경청하는 자세로 발표를 듣고 발표가 끝난 직후에는 질문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장 한쪽에는 속기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속기 내용을 화면에 띄워줍니다. 회의장에 비치된 번역기는 그 내용을 다시 각각의 언어로 변환할 수 있었고 덕분에 한글로도 발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속기인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우리 속기인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까지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 탓에 좀 더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최 측이 마련한 일정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 가고 있을 때 각국의 대표단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하루하루 일정을 보내면서 익숙해졌던 얼굴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처음보다 더 돈독해진 유대감으로 모두가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한국대표단 정지는 선수가 수상을 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러진 송별만찬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흥분하게 마친 대표단들이 모두들 멋진 옷으로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 그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송별만찬 장소였던 포도원도 너무 멋진 장소였고 주최 측에서 준비해 준 음식도 디탈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한국대표단도 둘러앉아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는데 길게만 느껴졌던 이탈리아에서의 여정이 곧 끝나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돌이켜 보니 참 좋은 추억이 많았습니다. 한국대표 선수로 선발된 것, 이번 인터스테노 일정을 함께했던 대표단과의 소중한 인연, 칼리아리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 모두 앞으로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무료할 때 칼리아리에서의 추억을 종종 꺼내 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칼리아리,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9 아웨이컵 속기경기대회

### 총 보 부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아웨이컵 속기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웨이컵 속기경기대회의 종목은 보고 치기, 눈 가리고 치기, 실시간 경기, 텍스트 정리, PPT 제작 경기 등 7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대표단은 보고 치기, 눈 가리고 치기, 실시간 경기, 3개의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아웨이컵 속기경기대회 현장 속으로 떠나 볼까요?



항저우에서의 본 대회를 앞두고 9월 19일 아웨이컵 속기경기대회 한국대표단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자막방송, 교육속기 등 실시간속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직 속기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선발전은 10분에 걸쳐

매 1분마다 18자씩 낭독 속도가 증가하는 인터스테노 리얼타임 종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선발전을 통해 김민정·한태영·박찬희 속기사가 정확도 99%를 넘나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둬 아웨이컵 속기경기대회에 참가할 한국대표단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항저우 절강경제직업기술학교에서 열린 아웨이컵 속기경기대회는 정보 분야



관련 실무자 및 인공지능 관련 직업대학 및 대학교 학생들의 정보활용 교육과 훈련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대회를 경험한 예비 인력들은 중국과 국제정보 처리 분야 간의 교류·협력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최 측의 초청으로 이번 아웨이컵에 함께하게 된 한국대표단은 경기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한글속기와 속기키보드의 우수성에 관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 덕분에 한국 속기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또 이번 대회 기간 한중 양국은 친선 속기경기대회뿐 아니라 한중 속기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이를 계기로 양국 속기계의 우호 관계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 비공개회의록 공표에 관한 연구

2019 의회기록발전연구모임

### I. 서론

국회의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에 대한 회의록 공개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공개 관련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열람을 어렵게 하는 비공개회의록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법규들의 개정을 통해서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공개회의록에 대한 공개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비공개회의와 불개제 부분에 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해의 사례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국회 비공개회의록의 문제점

#### 1. 법 해석에 따른 문제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국회법 제118조는 법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문제

#### 2. 관리상의 문제

현행 국회의 비공개회의록은 책자회의록 단 1부와 전자파일을 국회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제14대 국회 이전에 생산된 회의록은 컴퓨터의 미도입으로 인하여 원고로만 보관 중이다. 특히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의 경우에는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정보위원회 관할 지정 장소에 책자 형태의 회의록 단 1부만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상태로만 보관되어 있는 비공개회의록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자가 흐려져 가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은 책자 형태의 회의록 단 1부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활자가 휘발될 우려가 있고 화재나 기타 재해로 멸실될 경우 복원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은 정보위원회에서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나 회의록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요원이 없기 때문에 1994년 정보위원회가 개설된 이후 회의록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 보존매체 제작 등을 위해 비공개회의록의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비공개회의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회의록 관리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sup>2)</sup>

2) 김소희·조선훈·이미정, 「국회 비공개회의록의 관리 및 공표에 대한 개안안」, 『속기계』, 52, 대한속기협회, 2016, p.38

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제6항에서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회의록의 범주에 비공개회의록과 불개제 부분이 있는 회의록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문리적으로 봤을 때 제6항에 회의록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공개회의록과 불개제 부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제4항에서 이미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공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6항에서의 회의록은 이미 공표하기로 결정된 회의록만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제1항의 불개제 부분과 관련된 단서조항과 제4항의 비공개회의록이 결부되어 있다. 즉 제1항은 비공개회의록이 아닌 불개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4항에 따라 비공개회의록뿐만 아니라 불개제 부분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공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 문제 역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만약 제4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에 불개제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비공개회의록과는 별도로 불개제 부분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개제 부분이 포함된다면 비공개회의록과 함께 공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3) 김창환,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개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 한국기록학회, 2013, p.105-106

#### 3. 공개 재분류의 문제

공개 재분류는 일반적으로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여부 판단을 위한 재분류류의 미한다.<sup>4)</sup>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이라 함)에서 정의하는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의미한다. 다만 각 현법기관은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회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국회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제한적인 경우에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측면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록관리법을 모범으로 하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역시 제32조를 통해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sup>5)</sup>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비공개회의록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개를 허용하고 있어 기록관리 관련 법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국회법보다 나중에 제정된 기록관리법에 맞추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6)</sup>

다음 장에서는 해의 사례를 통해 본 장에서 언급된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4) 송재희,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3, p.20

5) 김창환, 앞의 논문, 2013, p.109-109

6) 김창환, 앞의 논문, 2013, p.110

### Ⅲ. 비공개회의록 공표 관련 해외 사례

#### 1. 미국

미국의 경우 의회기록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의 비공개와 관련하여 상원 의사규칙 및 하원 의사규칙 그리고 상원과 하원의 각 위원회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록의 비공개와 관련된 최상위 법령은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이 다. 헌법 1조(Article I: 의회) 제5조제3문에 상원과 하원 각 의원은 회의록을 유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비공개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입법절차상 본회의 단계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토론 과정이 모두 국민에게 방영되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과정은 그 내용이 국가안보, 외교, 내부 직권과 관련된 사항, 범죄와 관련된 개인기소, 기밀과 관련된 사안, 정보원 공개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논의할 것인지를 위원회 구성원의 다수결 투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선 미국 상원의 경우 상원 의사규칙에서 회의의 비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청문회를 포함한 위원회의 각 회의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 내용이 국가안보, 외교, 내부 직권과 관련된 사항, 범죄와 관련된 개인기소, 기밀과 관련된 사안, 정보원 공개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논의할 것인지를 위원회 구성원의 다수결 투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상원 의사규칙을 통해 S. Res. 474(제96대 의회 회기)에 따라 상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

부분의 기록은 20년 후 연구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포함한 인사 기록, 임명 기록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50년간 공개를 유예하며, 국가안보 비밀 정보는 일반문서로 재분류되어 비밀에 해당되지 않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미국 하원의 경우 하원 의사규칙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7의사규칙(Rule VII)에서 의회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7의사규칙 제3조에서 하원·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이미 일반인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제1호), 기록물의 이용시간·절차·조건 등이 규정된 하원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3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생존하고 있는 특정 인물의 인적사항에 관한 조사기록(공개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할 침해의 우려가 있는 기록), 인사 관련 문서 및 제11의사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와 관련된 자료 등은 5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30년이 경과한 후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50년이 경과한 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 하원은 정보특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경우 관련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우선 정보특별위원회는 제10의사규칙(Rule X) 제11조에서 그 보유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칙 및 절차를 제정·실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비밀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익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보다 명백히 중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제11의사규칙(Rule XI)의 제2조에서 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루어진 기록 표결의 결과는 당해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민감한 정보가 많이 취급하는 위원회에서도 무조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정보일 경우 공개를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 2. 영국

영국은 의회 체제의 모태가 되는 국가로서 전통이 강한 만큼 의회 기록관리도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TNA)의 간섭 없이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의회기록이 공공기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TNA에 이관하지 않고 의회 내에 의회기록보존소(Parliamentary Archives)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상원에 비해 하원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서 국정조사 등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주요 입법기능을 대부분 하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하원의 의사규칙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중 V. 청원·의회자료·일반인의 제163조에서 회의의 비공개 동의를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본회의 또는 전원위원회의 회의 중에 의원이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동의를 제안한 경우 의장 또는 전원위원장은 해당 의제를 즉시 의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6) 김창환, *의회 논문*, 2013, p.111-115

영국 하원의 의사규칙은 비공개회의록에 대한 열람 및 공개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서 의회 기록까지 관장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영국 의회기록의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2조제3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다른 방법으로 인해 접근 가능한 정보, 제23조 향후 발행 예정인 정보, 제32조 법원기록, 제34조 의회 특권, 제36조 의회 상원과 하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효과적인 공무 수행에 선입견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40조 개인정보, 제41조 비밀로 제공된 정보, 제44조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두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국회법에서 비공개회의록 및 불개재 부분의 공표와 관련하여 비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회의록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상세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와 회의의 공개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같이 공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Ⅳ. 비공개회의록 공표를 위한 개선방안

#### 1. 공표 시기 및 방법

헌법 제50조 국회 회의의 공개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회의록 역시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법 제118조를 개



정하여 비공개회의록만 아니라 불개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회의록도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제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존하고 있는 인물의 인적사항에 관한 조사기록이거나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인사청문회 관련 기록은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생산연도 30년 공개 원칙은 미국 하원과 영국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기록관리법의 공개 원칙을 준용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규칙을 참고하여 생존하고 있는 인물의 개인정보 또는 조사기록 그리고 인사청문회 관련 기록은 50년 공개 원칙을 적용하였다.

30년 또는 50년 경과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이 국회회의록공표심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sup>7)</sup>

위에서 제시한 개정 국회법을 근거로 비공개회의록과 불개제 부분 공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우선 현재 국회에 있는 관련 법규 중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규정은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미비된 비공개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7) 김창환, 앞의 논문, 2013, p.120~121

- ③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 ④ 정보위원회는 매년 회의록 생산현황을 작성하여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을 비공개 해제될 때까지 별도의 전용서고를 마련하여 보존매체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 2. 열람 방법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 국회의원이 보존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장소를 지정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관행적으로 열람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회의록 원본의 유출·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를 제안한다.

- 제12조(회의록의 열람·복사) ①~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에 따른 열람장소는 국회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하되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하되 외부로 무단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 가. 국회회의록공표심의회 구성

- 제00조(국회회의록공표심의회) ①** 의장은 비공개회의록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회의록공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심의회는 의장이 위임한 비공개회의록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심의회는 위원은 회의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국회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심의회 회의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의장은 심의회 회의에 참석할 위원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기타 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심의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 특례

- 제00조(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에 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되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 공개시기는 정보위원회 소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는 현재 비공개회의의 개시 전에 위원장의 발언으로 국회법 제158조에 의해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거나 국회법 제57조제5항에 의해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여야의 합의에 의해 비공개하거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비공개하기도 한다. 이처럼 회의의 비공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고 그 사유를 일일이 검색해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후 비공개회의록과 불개제 부분을 공표하기 위해서라도 누락 없는 목록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정보의 부존재에 의한 비공개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도록 전자적 공개를 충실히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sup>8)</sup>

### 3. 공개 재분류

공개 재분류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의 공개로의 전환은 당해 기록물의 내용이 국가 및 조직과 공공이익을 위해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구성원 및 관계자의 사생활 및 권의 등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기록의 내용이 공개되었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 일반에게 한 번 공개된 비공개기록물은 이미 비공개의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체제에서 공개 재

8) 송재학, 앞의 논문, 2013, p.63

분류의 적용범위를 비공개기록물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록물 공개 여부의 결정시점을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된 해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개기록물만을 공개 재분류 적용대상 범위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에 대한 공개 및 이용 등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공개 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개시점까지 철저하게 보호·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접근권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공개 재분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적과 취지가 이상적이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기록관 공개 재분류 시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연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5년 주기 재분류와 30년 재분류를 통해 비공개기록물을 최소화하고 기록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5년 재분류는 기록관에서 이관받은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 재분류된 연도로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는 제도이다. 단 외교통일·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이에 따른 생산기관 의견조회 시 해당 공공기관이 비공개한 경우에는 그 의견에 비공개사유 및 공개 가능시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0년 재분류는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기록물 중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공개 원칙을 적용하여 재분류하는 제도이다. 단 국가안보, 공익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기간 연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비공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회의록을 무단으로 파기·유출·손상·은닉할 수 없도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상 의원ان 열람할 수 있어 비공개회의록의 실질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담당자에게 접근권을 부여하고 안전관리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보존회의록은 단 1부만 생산되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보존회의록의 영구보존을 위한 이중보존매체 제작 등을 위하여 국회 직원이 비공개회의록 및 불개제 부분에 접근하여 회의록을 열람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규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를 제안한다.

**제11조(회의록의 보존·이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존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회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국회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중보존매체 제작 등 비공개회의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회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직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비공개회의록의 관리담당자는 회의록을 무단으로 파기, 유출, 손상,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 V. 결론

비공개회의록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관리 절차상의 미비로 인하여 공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이 글에서는 국회법 제118조에 대

## 4. 이관 및 보존 관리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제목이 '회의록의 배부·공표'임에도 불구하고 배부회의록과 임시회의록 등의 공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비공개회의록과 불개제 부분의 공표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00조(비공개회의록 등의 공표) ①** 국회법에 따라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 비공개회의록의 공개시기를 이관 시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회의록의 공개시기는 생산연도 종료 후로부터 30년 이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전쟁이나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 막대한 국가적 손실 등이 우려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생명의 위협,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우려되는 경우  
 ③ 의장은 비공개회의록의 공개시기 또는 공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의명 및 회의일자를 국회공보에 공표하고, 국회회의록시스템에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실무적으로 회의록이 매년 국회사무처에서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관시기에 맞춰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회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공개회의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회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직원

한 법 해석의 모호성과 비공개회의록의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된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와 노력을 통한 법률적 미비점 해소 및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장환,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개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 한국기록학회, 2013.
- 정소희·조신욱·이미정, 「국회 비공개회의록의 관리 및 공표에 대한 개선안」, 『속기계』 52, 대한속기협회, 2016.
- 송재혁,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3.
- 윤대근,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2011.
- 이보라, 「국회 비공개회의록 공개 개선방안 연구-비공개회의록과 불개제 부분의 공표 방안을 중심으로-」, 2018.

※ 본 논문은 지면상의 이유로 일부 편집되었습니다.

## 속기역사관을 찾아가다!

### 이보람 기자



지난 2017년 12월 12일, 속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속기역사관이 개관했다. 속기역사관에는 1909년 박여일이 조선어속기법을 최초로 발표한 이래 수필속기를 거쳐 현재의 컴퓨터속기에 이르기까지의 발간 기록물과 속기키보드, 속기 교재 등 다양한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개관식이 열린 12월 12일은 남조선과도입법원에서 최초로 속기법을 작성한 1946년 12월 12일의 7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서 그 의

미를 더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역사관으로 함께 떠나 보자.

### 특허증

속기역사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수십 개에 이르는 특허증들이다. 컴퓨터속기 개발 관련 특허증부터 디자인, 상표에 관한 특허증까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 한국의 컴퓨터속기 기술에 새삼 놀람까지 하다.



### 속기키보드

그리고 바로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 변화무쌍한 발전을 거듭해 온 속기키보드의 변천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이걸로 어떻게 속기를 하지?' 싶은 생소한 디자인의 모델부터 속기키보드라기보다는 피아노라고 해야

### 속기의 연혁

앞으로 한걸음 옮기면 한국 속기의 역사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연혁도를 만날 수 있다. 1909년 미국 이민 2세였던 박여일이 하와이에서 <신한민보>에 <조선어속기법>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946년 과도입법원의 제1차 회의에서의 첫 속기법 작성, 1994년 CAS 컴퓨터속기의 출시, 2009년 중국 베이징 국제속기대회에 최초 참가, 2013년 한중 속기우호교류협회 출범, 2017년 부천대학교 스마트속기와 신설 등 한국 속기의 발전 과정과 시대별 주요 이슈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



### 회의록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속기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제일 처음 보이는 것은 속기 방식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기록물들이다. 특히 회의록에 관한 자료들이 다수 보관되어 있는데 국회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성동구의회 및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회의록 등이 전시되어 있다. 회의록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 방법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고 의사일정, 보고사항, 부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문서이며 보존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속기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짝꿍이라고 할 수 있다.

할 것 같은 흥미로운 장비 그리고 지금의 속기키보드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모델까지 다양한 키보드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

1906년경 미국 워드스톤 아일랜드가 개발한 QWERTY 배열의 스테노타이프 초창기 모델부터 1911년경 출시된 현재의 속기키보드 배열로 바뀐 신모델까지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 속기교육 자료



바로 옆에서는 다양한 속기교육용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의회식·일파식·한국식·남천식·동방속기·고려속기 등 이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양한 수필속기의 방식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청에서 컴퓨터속기 검인정교과서로 최초 승인한 '컴퓨터속기' 교재 6권도 전시되어 있으며, 2017년도 개설된 최초의 속기 전문학사 학위 과정인 부천대학교 스마트속기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9권도 소개되고 있다.

### 외국 속기

속기역사관에서는 비단 한국 속기뿐만 아니라 외국의 속기와 관련한 자료들도



전시하고 있는데 미국·중국·일본 등 다양한 외국 속기의 교재와 속기회보 등이 있다. 특히 2013년 벨기에 겐트에서 한중 속기대표 7인이 서명한 한중 속기우호교류협회 창립 선언문도 직접 볼 수 있다.

#### 인터스테노

인터스테노는 유네스코에 가입된 민간단체로서 UN헌장정신에 따라 속기·타자 분야에 관계되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등에 관한 연구보고를 행함과 동시에 전 세계 속기인의 결속과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와 속기인의 권리 신장을 강구하는 국제기구로 (사)대한속기협회는 1983년 7월 21일 정식 가입했으며 2009년 중국 베이징 총회부터는 회의는 물론 세계속기경기대회와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속기역사관의 정중앙에 인터스테노에 참가했던 한국대표단의 각종 기념품 및 자료들을 보관한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미디어 상영관

역사관 한쪽에는 두 대의 영상기가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속기키보드 개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미디어 상영관이다. 국회, 법원, 검찰, 자막방송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속기사들의 영상자료 등도 상영하고 있다.

#### 자막방송

속기역사관에는 자막방송과 관련한 전시물도 있는데 특히 실시간으로 자막을 전송하는 지금의 시스템과 달리 초창기 자막방송 제작에 활용된 당시의 인기드

## 회의록에 숨겨진 영국 하원의회 이야기

김진주 기자

영국 하원 회의록을 보면서 문득 '왜 의석 발언이 없지? 잘 정돈된 회의록처럼 회의 또한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은 소위 말하는 '속기사의 신조'대로 정말 들은 것만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않는,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이 당시의 상황을 활자로 박제해 놓은 형태라 회의록을 보면 그날의 회의가 조용했는지 시끄러웠는지 대중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회의록과 그 당시의 상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속기사들이 겪는 고충 중의 하나가 의석 발언인데, 그중에서도 국회 본회의 속기는 회의장이 넓어서 마이크가 꺼지면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의 소란스러운 상황을 속기사

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이크가 꺼진 후의 발언을 우리나라처럼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발언이

겹치거나 방해받을 때는 간단히 이탤릭체로 상황 표기만 하는 영국 하원 회의록의 형식이 내심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본 영국 하원 회의장의 모습은 이런 내 생각과 완전히 판판이었다. 경질한 회의록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역동적이었다. 국회속기사들이 소란스러운 회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흔히 '땀'라는 은어를 사용하

라마 대본도 진행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 속기체험

속기역사관 한쪽에는 직접 속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속기역사관 개관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의 일환으로 속기역사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속기를 직접 체험해 보며 많은 흥미를 느끼고 돌아간다고 한다.

2015년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의 초청으로 CAS 속기키보드를 전시한 일이 있었는데 정상석 속기역사관장은 이 전시회를 계기로 속기역사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랜 시간 역사관 개관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속기역사관 개관 이후 일본 속기협회가 매일 발행하는 소식지인 '일본의 속기'와 월간 '뉴미디어' 2018년 4월 호에 한국의 속기역사관 개관식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인터스테노도 e-news 소식지를 통해 전 세계 회원국에 한국의 속기역사관 개관 소식을 전했다.

비록 아직은 그 규모가 협소하지만 속기역사관의 역사는 이제 시작되었다.

는데 영국 하원 회의는 '탄' 수준을 넘어서 '제'가 되어 버렸다고나 할까, 아무튼 의석 발언을 회의록에서 볼 수 없었던 게 이해가 될 정도였다. 아니,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적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하원의원들은 총리의 발언 후 아니면 발언 중간중간 자신의 기본에 따라 혹은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자유롭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야유나 호응을 했다. 총리 또한 답변하지 않을 때에는 의석에 앉아 있다가도 답변 시에는 일어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회의장에서 가만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의장뿐이었다. 의원들이 항의 등의 뜻을 표출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회의록에 상황 표기를 해 주기도 하지만 실제 표현된 횟수보다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규모부터 형태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국 하원 회의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하원 회의장 건물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되어 재건축되었는데 재건축을 할 때 영연방 국가들이 재건에 필요한 자재비용을 냈다. 예를 들어 회의의 문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테이블은 캐나다, 바(bar)는 자메이카, 의장석의 의자는 호주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이 기여했다. 이를 통해 과거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제국'이라 불리었던 영국의 위상을 간



(이미지 출처: <https://www.flickr.com/>)



(이미지 출처: <http://webarchive.parliament.uk>)

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이 반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영국 하원 회의장은 지사각형으로 회의장 중앙에 의장석이 있다. 의장석 아래에는 대형 테이블이 있어 그곳에 사무총장, 사무차장, 참사 등이 권위를 상징하는 가발을 쓰고 앉아 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telegraph.co.uk/>)



(이미지 출처: <http://news.bbc.co.uk/>)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각각 5열의 벤치가 놓여 있는데 의장석에서 오른쪽이 정부·여당석 그리고 왼쪽이 야당석이다. 우리나라 본회의장과 같은 연단이나 상단이 없으며 명패도 없다. 심지어는 원고나 물건을 놓을 자리도 없이 그저 벤치뿐이다.



(이미지 출처: <https://uk.motort.com/>)



(이미지 출처: <https://www.bbc.co.uk/>)

회의장 바닥에는 청회색 용단에 붉은 색의 붉은 선이 양쪽에 한 줄씩 그려져 있다. 첫 줄에 있는 벤치에서 각각 3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표시되어 있는데

정돈되어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역동적인 토론의 현장을 회의록에서 오롯이 느낄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울 정도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국 하원 회의와 회의록에 대해 부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해져 있지 않은 발언시간과 꺼지지 않는 마이크였다. 디스패치 박스(dispatch box)라고 불리는 발언대에 설치된 마이크뿐만 아니라 회의장 천장 곳곳에 마이크가 매달려 있어서 의원들이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고 또 발언시간에 제한이 없어서 발언자의 마이크가 꺼질새라 가슴 졸여 가며 속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 자라도 더 정확히 기록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에는 영국이나 한국이나 큰 차이가 없었지만 본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영국 속기사들이 조금 더 자유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보며 이상 글을 마친다.



(디스패치 박스에서 발언하는 테레사 메이 총리)  
(이미지 출처: <https://www.independent.co.uk/>)

※ 영국 의회 회의록 시스템 사이트: <https://hansard.parliament.uk>

- 참고 -

국회 의정기록과 의회기록발전연구모임 2017년 논문 '회의록에 숨겨진 외국 의회 이야기'

문제풍, '영국 하원의장의 역할과 권한'

## 패스트트랙의 기억

홍상헌 기자

작년 한 해는 패스트트랙, 조국 인사청문회, 필리버스터 등 정치적 이슈들이 많았던 해로 참 다사다난했다. 총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에서는 정치적인 기사들이 끊이지 않았고 합의가 되네 안 되네 이런 기사에 일회일비했던 기억이 난다. 모름지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된다지만 작년은 상황이 많이 급변했고 예측할 수 없었던 터라 갈팡질팡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고 정신없었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자 한다.

### - 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 특권을 지칭한다.

우리가 흔히 패스트트랙이라고 부르지만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조항이며, 이 규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 후 180일 이내에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이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



(천장 곳곳에 매달려 있는 마이크들 1)  
(이미지 출처: <https://theworldnews.net/>)



(천장 곳곳에 매달려 있는 마이크들 2)  
(이미지 출처: <https://www.timesofisrael.com/>)

쳐야 한다. 또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돼야 한다. 총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단계에서 기한이 안 지켜지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페스트트랙이라고 일컬어진다. 330일이 무슨 페스트트랙이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이 시점에서 330일 만에 안건이 처리될 수 있다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

2019년 4월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었고 비야호로 페스트트랙 정국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페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정당 간 갈등은 커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막살람이, 감금, 인간띠 등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나서 보이지 않던 동물국회가 7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페스트트랙 당시 국회의 모습과 이 험난한 페스트트랙 소송들이 속에서 과연 국회속기사는 어떻게 제 역할을 다했는지, 어떻게 난관을 극복했는지에 관해서 심층 분석해 보았다.

- 국회속기사 관점에서 본 페스트트랙

당시 국회는 페스트트랙을 놓고 정당 간의 갈등으로 동물국회가 재현되었으며 의원, 보좌관, 국회 경위, 취재진들의 몸싸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장 출입이 제한되었다. 인간띠를 만들어 회의장 출입구를 막아 버렸기 때문



에 국회속기사로서는 참 난처한 상황이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제 역할을 해야 했기에 속기사를 포함해서 모든 국회 직원들이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을 것이다.

오른쪽 사진은 회의장에 왔는데 의자로 출입문을 막고 그 앞을 지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인 국회속기사의 사진이다. 빈틈이 하나도 없었고 자칫 뚫으려다가 물리적 충돌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또한 다른 회의장에서 한다고 정보를 입수해도 도착 전에 회의장 출입을 막아 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먼저 들어가서 회의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통상 겪었던 회의 상황과 달라서 긴장되고 다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만약 회의가 시작됐는데 속기사석에 속기사가 없다면 이보다 더 큰 대형사고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지를 당하지 않고 눈치껏 슬며시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능력이었다. 왼쪽 사진은 회의장에 슬며시 잠입하여 회의가 시작되길 기다리는 국회속기사의 모습이다. 자연스럽게 잘 잠입했지만 회의 장소가 바뀌어서 회의장에 얼마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다. 이날 저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택타이도 안 하고 정당 관계자처럼 보이기 위해 연기를 했다고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7년 후 국회는 다시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였다. 페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법안 제출 과정에서 겪었던 의인과 문을 열고자 망치와 쇠지레, 해머가 등장하였다.



의인과가 있는 국회 본청 7층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열기로 사우나처럼 후끈했으며 화장실을 갈 때도 조심하곤 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국회의 상황이 긴박했음을 보여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군대에서 작업할 때나 쓰던 도구들이 보이니 좀 어색했다. 이렇게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모순이 아닐까? 협치의 장인 국회에서 동물국회가 재현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전수전 끝에 회의는 시작됐지만 페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놓고 정당 간 충돌은 여전히 계속됐다. 오른쪽 사진은 국회속기사가 속기를 하는 도중 의원에겐 손을 잡히는 모습이다. 역시 베타기를 안 하고 있으며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갔다 보니 머리가 봉 뜯은 모양새다. 속기사의 얼굴을 보니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저 당시 많이 긴장했지만 최대한 의연함을 잃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몇 명의 국회속기사가 회의장에서 같이 상황을 주시했고 번갈아 가면서 속기를 했다. 소수의 인원이 진입에 성공했지만 곧바로 문이 닫혀서 추가로 진입이 불가능했고 적은 인원들로 속기를 해야 했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긴박한 상황인지라 마이크를 통한 발언보다는 갑자기 터져 나오는 발언이 많아서 속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또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 말고도 워낙 많은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자가 누구인지도 같이 체크를 했다.

마이크가 꺼졌거나 떨어져 잘 안 들리는 곳에서 발언이 나오면 녹음기를 들고 옆에서 녹음을 하는 등 회의 상황에 잘 대처했다. 특히 위원장석 쪽에 의원들이 모였고 발언도 많았기에 주로 위원장석을 주시했다고 한다.



왼쪽 사진을 보면 위원장석 옆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국회속기사의 모습이 보인다. 또한 의사봉 앞에도 녹음기를 두는 등 회의 내용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비단 회의장 진입에 성공한 속기사들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있던 인원들도 방송을 보면서 속기를 했고 방송에서 잘 안 들리는 부분엔 현장에서 속기한 내용을 추가하여 회의록의 완성도를 높였다. 사무실에서 속기하는 인원들 덕분에 회의장에 투입된 속기사들도 마이크에 들어간 발언보다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발언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결국 모든 국회속기사들이 합심하여 페스트트랙이라는 난관을 잘 극복한 것이다.



- 글을 마치며

정당 간 정치적 갈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회속기사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고 페스트트랙뿐만 아니라 각종 인사청문회, 심지어 필리버스터까지 겪으면서 한층 더 성장했다. 또한 서로를 서로트랙 주고 제 역할을 다한 결과 2019년을 무사히 잘 넘겼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동물국회,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계기로 앞으로는 한층 더 성숙한 국회, 일 잘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고 그에 걸맞은 국회속기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뉴스시, 사개특위, 회의 진행중인 이상민 위원장 JTBC, [정치부회의] 무용지물 된 국회선진화법...고성·몸싸움 '밤샘 대처'

제27회 한글속기학술세미나를 다녀와서

김수정



2019년 5월 23·24일 이틀간 제27회 속기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대한속기협회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속기산업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함으로써 발전방안을 모색해 가는 의미를 가진 행사이다.

이번 세미나 장소는 이전과는 다르게 거리가 있는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리조트였다. 국회 내에서는 조금

다르게 편안한 복장을 하신 선배님들, 동기들과 한 버스에 다 같이 타고 이동하니 원만한 봄 날씨에 맑은 하늘까지 더해져 여행을 가는 기분이 들었다.



버스로 두 시간쯤을 달려 점심 식사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동기분들과 따로 차로 오시는 선배님들을 뵈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몇십 년 동안 이어 온 동기애의 모습이 저런 결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한 시간을 더 달려 마지막에는 굵직한 산길을 오르며 세미나 장소에 도착했다. 장소가 굉장히 넓적이고 숙소도 쾌적한 곳이었다. 숙소에서



점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개최식과 함께 세미나 강의를 듣기 위해 이동했다. 이동 동선인 숙소에서는 거리가 좀 있고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동기와 몇몇 선배님들과 함께 세미나 장소 안내를 도왔다. 그러면서 다시금 잘 몰랐던 선배님들과 속기협회와 관련된 회원분들의 면면을 익힐 수 있었다.

이주성 대한속기협회장님과 김덕진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발표 주제는 총 세 가지로 2시부터 6시 가까이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는 '선진 외국의 속기 역사: 독일과 일본'이었다. 조정은 한국속기학회 회장님이 발표를 해 주셨다. 외국에서도 자동음성인식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속기록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 주제는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법'이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서울의 역사에 대해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주제는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음성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주제였다. 이경숙 대한속기협회 연구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다. 국회에서 속기사와 AI를 비교하는 시연회도 하고 그 결과도 텍스트로 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 음성인식 기술이 도입될 경우 현재의 회의록 작성 시스템의 절차가 변화되고 또 그것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알았던 강의가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저녁 뷔페가 준비되었고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무대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가면을 썼지만 익숙한 모습의 선배님 한 분이 MC로 등장해 분위기를 띄웠다. 전부터 우리 동기 몇 명이 저녁 만찬 때 무대를 준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는 비밀(?)이었다. 노래 반주가 시작되고 가면을 쓴 동기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장 잘 부른 사람 투표와 노래하는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컷속말로 선배님들의 답을 듣고 발표하는 역할을 잠시 맡았는데 선배님들 대부분 세 명 중 한 명을 맞히지 못하셨고 모르겠다는 반응이어서 더욱 재미있어 하셨던 것 같다. 분위기가 점점 업이 되고 동기들이 준비한 드라마 하이라이트 부분 연기도 선보였다. 열심히 노력하고 귀여운 모습에 회원분들과 선배님들이 즐거워하셨던 무대였다.

만찬과 저녁 행사가 끝나고 숙소로 이동해 자유시간을 가졌다. 동기들과 함께 정순화 전 회의관님을 비롯해 잊지 않고 세미나를 찾아 주신 퇴직하신 분들께 짧게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식을 먹고 나니 어제에 이어 날씨가 맑고 햇볕도 따스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신 분들도 잔디밭으로 오셔서 세미나에 참석했던 모

든 분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모이면서 새삼 '한글속기를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국회뿐만 아니라 속기협회, 지방의회, 자막방송, 복지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세미나가 정말 중요한 행사라는 것과 많은 분들의 준비 속에서 결실을 맺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세미나가 더욱 풍성하고 알찬 강의와 재미 있는 행사로 이어질 것이기에 더욱 기대가 된다!



### 오랫동안 꿈을 그리면 마침내 그 꿈을 닮아 간다

김 명 진



안녕하세요?

국회에 들어오기 전 대한속기협회에서 발간하는 속기계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새내기인사 코너에 있던 선배님들 합격수기를 읽으며 수험기간 도중 나태해진 저를 채찍질할 수 있었고 복잡한 머릿속을 환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기계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되니 국회속기사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 짧은 글이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시작은 수필속기

스무 살 대학교 입학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고 그 대화 속에는 어머니께서 예전에 배우셨던 수필속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 속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 속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속기를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던 찰나에 저는 그냥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당시 속기를 배우지 않으면 10년 뒤 다시 속기를 배우러 돌아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속기에 대한 미련이 항상 저를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후회하지는 생각으로 속기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속기를 시작하며 제 목표는 오로지 한군데, 국회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 모르겠지만 모든 속기사들이 한 번쯤 꿈꾸는 국회를 저도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속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고민해 보니 답은 국회였고 다른 곳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세 번의 도전

군 제대 후 2017년에 첫 번째 국회 필기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이 70점이었고 1점 차이로 저는 떨어졌고 같이 준비했던 쌍둥이 형은 합격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쉬움과 동시에 1년 더 하던 합격하겠지 하는 오만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 차인 2018년에는 떨어질 것같이 공부해 왔었고 당연히 결과는 필패였습니다. 그 후 19년에 도전할 때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잠자는 시간까지 인터넷 강의를 틀어 놓으며 공부 외에는 모든 걸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국회는 그만 도전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매진했고 드디어 필기시험을 뚫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최종 합격자 명단을 봤을 때보다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봤을 때가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 끝은 또 다른 시작

국회에 합격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험생 때는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출근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수험생 때의 한 걸음과는 달리 한걸 거머쥔 느낌입니다. 또한 공무원증을 볼 때마다 속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합격하는 그날까지의 순간들이 모여 이 공무원증이라는 작은

역사가 된 것만 같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면 마침내 그 꿈을 닮아 간다'는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국회속기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노력했더니 정말 국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회속기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 발씩 걸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곳에 도착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최초로 쌍둥이로서 그것도 같은 부서에 임사했습니다. 쌍둥이에 대한 첫 선례인 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까지 보게 될 사이라니 쌍둥이보다 더 쌍둥이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로서 또 한편으로 자극이 되는 경쟁자로서 의정기육과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같은 방 선배님들의 원고 정확성과 신속성을 바라보며 저도 선배님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홀로 있을 때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관심 갖고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 포기하지 말 것, 자신을 믿을 것

이 가 현



### 속기에 첫발을 내딛다

2013년 저는 광고 천재라 불리는 제2의 이재석을 꿈꾸며 기획서를 꾸리고 공모전 준비를 하는 평범한 광고 전공 3학년 학생이었지만 머릿속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고 보다 사무적이고 문서적인 일을 하는 것이 제게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는 단순 사무직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속기사의 신들린 타자 속도' 동영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리하여 알게 된 것이 속기사의 직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전해 보고자 하는 욕심 반, 호기심 반으로 협회를 방문해 실제 키보드를 경험해 보면서 한글 자를 누르면 여러 글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무척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꼭 어디가에 목표를 두고 속기사의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보다는 '하다 보면 어디엔가 정착하게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속기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 속기사무소에서 국회사

처음에 온라인 강의부터 시작해서 독학을 하며 남들보다 더 빠르게 실력을 늘

려 갔습니다. 한글속기 2급 자격증까지 취득한 후에 제가 처음으로 정착한 곳은 수원법원 앞에 위치한 속기사무소였고 그곳에서 첫 실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박또박 낭독하는 성우의 음성에 따라 빠르고 정확하게 치는 것만 익숙했던 저에게 이 낯선 곳에서의 1년은 맞춤법·띄어쓰기부터 시작해서 오정 없이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부딪히며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질이 좋지 않은 음성파일을 들으며 녹취록과 회의록을 만들다 보니 속기 실력도 확연히 늘게 되어 자연스럽게 한글속기 1급 자격증도 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소는 굉장히 소수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조금 더 크고 안정적인 곳에 가서 전문적으로 일을 배우고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에는 100여 명이 넘는 속기사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소수만 일하는 것이 익숙했던 저에게 국회란 곳은 조금 더 체계가 잡혀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 처음으로 나도 국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국회사로 가기 위한 긴 터널

그리하여 2017년, 정들었던 속기사무소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당장 공무원 수험서를 사서 필기에 매진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 최선을 다했지만 역량이 부족했는지 2018년 필기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이 컸지만 '한 번 더 해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출발점에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다시 시작했지만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해 너무도 불안했고 공부 하느라 사람도 잘 안 만나다 보니 하루 동안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은 날이 적

점 늘어난 것입니다. 겨울에 비친 웃음기 사라진 내 모습과 이대로 여기에 갇혀 버릴 것 같은 우울감에 슬럼프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에서 며칠째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서 든 생각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저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간절했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고 떨어지더라도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힘 없이 축 늘어져 있던 저를 다시 책상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체크하여 전략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필기합격자 명단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수험번호 91000340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기회를 잡고 싶었고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실기시험을 보러 가는 날 여의도로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혹시나 키보드가 눌러서 시험장에 가서 오류라도 날까 봐 지하철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 틈에서 키보드가 안 눌러도 록 안에 꼭 안고 국회의사당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실기시험을 치렀는데 운이 좋았는지 실기시험까지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면접에서 10명 중 7명만 붙고 3명이 떨어져야 했는데 '그 3명 중 1명이 내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은 저를 더욱 체계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면접을 끝내고 나오면서 '이제 다 끝났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는 나의 운명에 맡기자'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다음날이 최종합격자 발표였기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날 최종합격자 명단에 쓰여 있던 숫자 91000340을 본 순간

수만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해왔다는 성취감과 실패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기쁨 그리고 제가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것을 알기에 뒤에서 함께 울고 계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 터널의 끝

아직도 출퇴근하는 길에 멀리서 동그렇게 솟아 있는 국회 건물을 보면 합격자 발표가 나던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에 신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요. 2년이 넘는 수험기간은 제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묵묵히 버티면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참고 버릴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던 담금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새내기 국회속기사이지만 결코 쉽게 얻은 것이 아니기에 저에겐 그만큼 애정이 있는 직업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때의 간절함을 잊지 않는 후에 국회속기사가 되도록 달려 나가겠습니다.



## 모두의 합력

임수민



벚꽃이 단개한 윤중로를 걸으며 출근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잊그제 갑니다. 그것이 현실이 된 지금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의 조언으로 시작한 속기

속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추천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학사와 석사 모두 의학을 전공한 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길을 계속 걷고 그 길에서 저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실을 마주하였을 때 의류학도로서의 제가 추구하는 일과 가정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쉽사리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머니께서는 속기사를 하고 싶었던 당신의 옛 시절을 떠올리며 저에게 해 보지 않겠냐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물론 자료를 다루고 내용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의 적성도 함께 고려하셨고 주변 지인들의 조언도 참고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꺼내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속기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간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학원 선생님께서 '국회를 바라보고 매진하세요'라고 해 주셨던 말씀이 제게는 하나의 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의 꿈은 국회속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 선배님들의 합격수기로 성장한 속기실력

2월식 타자기와 전혀 다르게 생긴 속기키보드가 신기해 이것저것 눌러 보며 기본자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일 학원에 나가 기본기를 익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렇게 빨리 말하는 내용을 과연 내가 작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국회속기사는 커녕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조차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런 의심이 근심으로 바뀌기 전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선배 속기사님들의 합격수기를 읽고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현직에 계신 분들의 수기를 모두 인쇄하여 하나하나 읽고 노하우에 밑줄을 그으며 적용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공부하면서 막혔던 부분이 뻥 뚫렸고 제 방식대로 정립하다 보니 어느새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보면 선배님들의 합격수기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로는 필기공부와 병행하면서 제가 목표로 했던 국회에 들어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든 해 보자는 마음가짐

수험생 시절 제가 다짐했던 모토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를 바라보고 시작한 속기였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자칫 무기력해질까 봐 '오늘 하루'에 집중한 것입니다. 필기공부를 하면서도 하루 3시간씩은 속기키보드를 놓지 않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 회의록을 보고 치는 연습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실무 경험을 함으로써 기회의 폭을 넓혀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때문에 자막방송에서 일을 해 보며 긴장감 있는 분위기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보기도 하고 녹취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보며 새로운 주제·영역을 접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운 좋게 합격한 서울시의회에서의 경험은 제가 막연하게 그려 왔던 회의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회의는 국회보다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입법부로서 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의제를 수행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국회와 일맥상통하며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 역시 시민·국민을 위한 안전이 주를 이루고 재정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정력을 발휘하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이전 경험들이 모두 자양분이 되어 국회속기사로 합격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검손하게 배우고 노력하는 국회속기사

어렵사리 합격한 국회에서의 하루하루는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회의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

는 것이 없고, 회의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하나하나 모두 경험이 되어 또 다른 노하우로 축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사한 저 얼마 안 된 시절에서 필리버스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체력적으로 다소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뿌듯함은 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에 퇴근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이 켜진 의사당 앞에서 '내가 정말 국회의 일원이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선배님들께 배우고 느낀 것은 작지 않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수많은 회의록을 작성하시고 검토했던 경험이 있으신데도 여전히 뉴스를 빠짐없이 보시고 새로운 내용을 찾아 공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배우고 싶은 노하우를 이미 모두 가지고 계시지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쉽게 보지 않으시고 한 글자도 빠짐없이 고심하여 작성하십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모습에 존경심을 느끼며 저 역시도 국회속기사로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친구들, 선배님, 선생님 그리고 의회 식구들까지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합격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 제가 선배님들께 배우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익혀 나가면서 후배 속기사님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국회속기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돈필승총(鈍筆勝聰)을 새기며

정순화, 정 란



국회라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다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4월 중순 벚꽃이 질 무렵 제2의 삶을 살고 계신 정순화 심의관님과 정란 씨 기관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홍보부** 두 분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의 근황을 전해 주세요.

**정순화** 그냥 먹고 놀고 직장인의 바쁨과 규칙적인 습관을 빼는 과정에 있어요. 여태 시간에 얽매어서 살았잖아요. 만날 바쁘게 빨리빨리.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아직 쉽지가 않네요. 계속 뭘 하면서 마음이 급해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괜히 그러고 있네요.

**정 란** 저는 약간 다른 게 국회라는 큰 울타리에 있다가 나가니까 조금 허전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내가 사람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사람이 그리워서 동네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파트 동 대표라든가 어쭙잡게 그런 것을 시작했어요.

**홍보부**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정 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활력소가 되고 그러네요. 플러스 '돌밤'도 하고, 돌밤이 뭘지 알지요? 돌아서면 밤, 돌아서면 밤.

**정순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 란** 덧붙이자면 사람은 이름을 남기잖아요.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그해 회의록에 남겨지는 건데 좀 의식해서 발언하고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 하면 고리타분하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한데, 점점 시대가 추후하는 게 깊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요. 의원들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의식하고…… 회의록을 의식해야 되거든요. 회의록이 역사의 기록이니까.

**홍보부** 재직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정순화** 옛날에 그런 게 많았는데 막상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예뻐서 될 만한 게 별로 없네요. 미담이 떠올라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나 날치기 현장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남는 것 같아요. 창문 깨부수고 회의장을 들어간단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네요.

**정 란** 저는 미디어업 통과. 그때도 날치기였지요. 날치기할 당시에 속기록도 약간 문제가 되었잖아요. 야당에서 제대로 됐네 안 됐네 고소·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김형오 의장님이 새로 오셔서 부서별로 회식을 하셨어요. 그때 의장님이 어디선가 온 전화를 받으시더니 '그건 속기사의 재량이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어찌나 반가웠던지…… 의장님께서 속기사한테 재량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동이있지요. 그런데 주변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속기사한테 8 대 2로 재량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8 대 2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에는 속기사의 신조에 있는 '들은 대로 기록한다' 그 부분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홍보부** 속기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모든 순간이 보람

**홍보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소회가 어떠신가요?

**정순화** 일단 저는 아무 큰 무리 없이 직장을 38년 정도 다녔는데 그렇게 끝낼 게 진짜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적성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았던 게 나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 하라고 그러면 잘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속기 업무가 똑같은 것 같지만 안 똑같잖아요. 남들은 한 10년 하면 달인이 되는데 우리는 달인이 될 수 없는 업무니까요. 그런 게 되게 잘 맞지 않았나…… 나이 들수록 그게 참 감사하고 적성에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 란** 나는 긴 터널은 빠져나온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뭘 딱히 안 하더라도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일단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홍보부** 오랫동안 속기사로 일하시면서 생긴 습관이나 버릇이 있으신가요?

**정 란** 글 읽거나 TV 볼 때 틀린 것을 못 봐요. 띄어쓰기도 그렇고. 간판도 마찬가지로, 뭔가 문장이 안 맞으면 기본이 나빠져. 그게 먼저 보여요. 직업병이지요.

**정순화** 마찬가지로요. 나도 TV를 보든 책을 보든 만날 교정하고 있고 앞뒤 문장 안 맞으면 고쳐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요.

또 하나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게 되었어요. 우리가 시간 끄는 것을 평소 하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5분, 10분은 그렇게 큰 게 아닐 거예요. 2시에 만나자 해 놓고 2시 10분에 간다고 해도 큰일은 아닌데 우리는 5분 전에 미리 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아직도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부** 두 분이 생각하시는 속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이실 것 같은데……

**정순화** 모든 순간은 아니지요. 어떤 순간은 속기사의 비애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무덤에서도 전화 올까 봐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지만 책임감이 따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보람인 거지요. 그게 나중에 역사의 증언이 되는 거고 내가 제대로 기록함으로써 누군가가 회의록을 살펴봤을 때, 그 기록을 토대로 판결을 할 때 또 이 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회의록을 찾아볼 때 되게 보람차고 좋은 것 같아요.

**정 란** 나는 아근하는 것을 참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새벽까지, 일 끝나고 퇴근하는데 변호실로 나가면 차량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찬바람을 맞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밤새 일했다는 뿌듯함, 보람, 그것도 장차관들처럼 땀땀한 사람들 틈에서 같이 피근하면서 나도 웬지 중요한 일을 한 듯한…… 중요한 일을 했지요. 진짜 나라의 중심에서, 심장에서 나도 하나의 혈관이 돼서 일을 했던 거지요.

**홍보부** 속기사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 란** 균형된 시각, 풍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한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재력이 좋아야 되지요.

**정순화** 거기가 플러스 항상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지요. 사회는 계속 변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온갖 말을 다 써야 되는데 아까 '돌밤'처럼 새로운 말을 배우는 자세…… 하다못해 신문이나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속기만 잘하는 데에서 끝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좀 더 질 높은 회의록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홍보부** 음성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 란** 음성인식이 앞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잖아요? 어차피 조금씩 들어오겠지. 한꺼번에 다는 아니더라도. 들어왔을 때 우리 속기사들이 설 자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제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성인식 기계는 제량이 없어요. 제량은 사람이 하는 일에 있는 거지요. 장내 소란이라든가 자구 정정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장내 소란 상황일 때는 더더욱 당연하지요.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속기사가 원고를 작성할 때 균형된 시각에서 아당 것 하나 넣었으면 여당 것도 하나 넣어 주고 그런 제량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그 제량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조금 해 보는 게 좋겠어요.

**정순화** 가야 할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 과의 역할인데, 기본은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고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야 된다고 봐요. AI에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회의록 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공할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 란** 이미 다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 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도를 해야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면 우리가 있는 게 더 있지 않을까……. 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세가 빨리빨리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임원 위고도 당일 발간할 수 있으면 한두 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부** 앞으로 의정기록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후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정순화** AI하고 맥을 같이하는 부분인데 회의록이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속과 정확은 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신속하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조금 이원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

### 소리 없는 화면에 지막으로 소리를 붙여넣어 주는 교육속기사

차 은 영



보았습니다.

교육속기란 무엇인가? 교육 현장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강의지원을 실시간으로 맡고 있는 교육속기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복지대학교 교육속기사 경력 17년, 현재 한국스튜디오 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 총괄 및 사업부 차은영 과장님을 만나

**홍보부** 속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많은 속기 지역 중 교육속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은영** 저는 대학 다니면서 속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여기 협회에서 연수를 받던 중 한국복지대학교가 개교했어요. 그래서 연수생들 중 몇 명을 차출해서 면접을 보게 했는데 그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교육속기에 대해 특별한 자질이라든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최초의 교육속기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수업지원도 하였고 교육도 많이 나가게 되었어요. 초창기였기 때문에 교육속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겪었던 시행착오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속기사들에게 교육하였는데 속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속기사로서의 역할보다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요구받게 되는 상황에 회의감도 들고 제대로 속기 일을

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정확하게 기록해서 회의록을 발간하고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의원들의 질의·발의 위주로 당일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 과의 사람도 살리고 AI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후배들도 우리가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해 나가는 게 살길이 아닌가 싶어요.

**정 란** 이하 동문.

**홍보부**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 란** 평소에 내가 가끔씩 했던 말인데 '국회는 회의체고 회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록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해 주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를 못 느끼면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요. 내가 내 일을 귀히 여겨야지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보다 중요한 수는 없다……

**정순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른 과에 갈 수도 없고 같은 과에서 같은 일을 몇십 년씩 하잖아요. 몇십 년씩 할 수 있는 중기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 내지 긍지가 있어야 하지 하찮겠질고 그러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해야 오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지요.

**홍보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국복지대학교에서 나와 한국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홍보부** 교육속기라는 새로운 분야를 처음 시작하신 거라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차은영** 맞아요. 저는 일단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조차도 알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학생 수가 많으면 모니터 분배기를 사용하지만 그때는 그런 방법을 몰라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 복지대학교 교육속기사가 다른 대학에도 소문이 나서 대구대학교 총학생회 요청으로 제가 시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그 학교는 속기사가 없어서 노트북 타이핑으로 수업지원을 하던 학교인데 총학생회에서 노트북 타이핑과 속기사 속도를 비교한 거예요. 처음에는 교수님 말이 빠르지 않아서 속도가 비슷했는데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제 속기쪽을 보면서 타이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대구대에도 속기사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서울대 등 시연을 몇 군데 더 다녀왔어요. 결론적으로 다 속기사가 배치되어서 결과는 좋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테스트에 당황스럽고 자존심도 상한 아픈 기억이에요.

**홍보부** 교육속기사가 되려면 속기자격증 이외에 다른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차은영**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저는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수님과의 관계, 청각장애 학생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계가 좋으려면 그 학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에 대한 기본 서칭을 하시고 임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수업지원을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자세, 속기 실력 이런 요건들을 갖추시면 좋아요.

**홍보부** 말씀하신 대로 학생과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수업지원을 하시면서 소통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차은영** 서로 대화를 못 하는데 온갖말을 하면 청각장애 학생들이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입 모양을 보면서 말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노트북을 통해 타이핑으로 대화하려고 교육 때 말씀드리곤 했어요. 종이로 쓰든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든 손짓 발짓을 하든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속기기를 오래 하다 보니 특별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상 대화는 다 수화로 합니다.

**홍보부** 교육속기기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차은영** 아무래도 학생이 내가 들어간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때 가장 보람이 있지요. 사실 교수님들이 '이 학생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느 학기에 교수님이 저에게 '그 학생 내가 성적 되게 잘 봤다. 잘 줄 수밖에 없었다. 준비도 정말 많이 하고 시험도 잘 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수고했다'라고 먼저 알려 주셨는데 사실 그때만큼 보람 있고 행복할 때가 없지요.

**홍보부** 교육속기기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차은영**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면, 한번은 강원대 씨가 특강을 하러 오셨는데 말씀 중에 욕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되게 웃긴 포인트인데 강단에서 욕을 섞어 가면서 하면 아이들은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제 손으로 쌍욕을 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씨XX'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이 자식아'라고 바꿔서 썼더니 다 크게 웃었는데 강사는 왜 웃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말을 좀 순화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번은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이 나와서 동아리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서 속기사 선생님님이 원고를 미리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저는 우리 한국복지대학교의 메시 000입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대목에서 속기록에 메시 사진을 곁

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선생님들이 청각장애 학생의 이해와 흥미를 위해서 미리 준비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홍보부** 한국스튜디오 사업의 일환으로 원격으로 교육속기기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은영** 정확한 명칭은 '장애학생도우미 지원사업'이에요. 장애학생들한테 전문 도우미를 붙여서 지원하거나 원격으로 지원하거나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문 도우미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속기사를 채용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원격으로 하는 경우는 교육부에서 센터를 세워서 거기에서 원격으로 실시간 전송을 하는 거예요.

원격으로 하는 경우 교육부에서 임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는데 은 좋게도 저의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이 채택되어서 작년 3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올해는 교육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용역을 주지 않고 학교 개별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홍보부** 그러면 학생들은 현장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원격지원을 받는 건가요?

**차은영** 예, 맞습니다. 학생은 노트북, 마이크, 웹캠 준비하고 마이크는 교수님 교탁에 올려놓으면 교수님이 착용하세요. 준비를 마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서 저희 플랫폼에 학생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속기록을 볼 수 있어요.

**홍보부** 수업 중 학생과 피드백도 가능한가요?

**차은영** 예, 저희 인터넷 창이 강의 속기록이 올라가는 화면도 있지만 저희가 수화지원도 하기 때문에 얼굴이 올라가는 화면도 있고 채팅창도 있어요. 수업 중에 돌발 상황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학생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상황이 있어서 그런 지원도 같이하고 있어요.

**홍보부** 현재 한국속기학회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참여하게 된 계기와 함께 한국속기학회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차은영** 한국속기학회는 속기 관련 분야의 연구·사업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국회 등 공공기관의 속기업무 및 속기산업의 발전을 건언하고자 2018년도에 출범되었어요. 저는 교육속기사 자격으로 출범식에 참석했는데 한국스튜디오에 입사한 이후 한국속기협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홍보부** 교육속기사로써 현재 가장 급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차은영** 당연히 직급 개선이지요. 지금 손에 꼽을 정도의 대학만 속기사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고 대부분이 학기별 계약직으로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학생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속기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전문 교육지원 인력에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전문 교육지원 인력이라고 하면 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사인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원할 때 비용의 80%는 국고로 하고 20%는 학교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대학들이 그 지원금을 보조받아서 속기사를 채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비용 186만 2000원을 다 쓰는 대학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한 선생당한테 15시간 이상 수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로만 쓰는 거예요.

**홍보부** 남은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차은영** 한 학생한테 두 명의 속기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 학생이 요구하는 수업이 5개라면 3개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대학에서는 수업지원의 질보다는 대학평가용으로 지원했다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국고를 받더라도 20% 계속 대응을 해야 하니까 그 20%도 아껴주기 안 하려고 하는 대학도 있고요. 좀 답답함이 있어요.

**홍보부** 교육속기라는 분야를 모르는 비속기인들이 아직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교육속기계의 대중화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차은영** 청각장애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때는 지원을 못 받다가 대학교 들어서 수업지원을 받으니까 기초도 너무 안 되어 있고 전공 용어라든지 흔히 쓰는 용어들조차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산하 200여 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청각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으니 상담 후 지원을 요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서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대중화가 되려면 직업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홍보 관련이기 때문에 꾸준해 나가다 보면 좀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속기협회도 교육속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주시고 한글속기학회세미나 때 같이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부**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육속기사를 희망하는 예비 속기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차은영** 여기가 보람과 성취도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곳이기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시간마다 들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청각장애인 지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내 속기실력을 마음껏 뽐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교육속기는 단순히 기록을 넘어서서 청각장애인 학습 지원이에요. 그래서 호칭도 '선생님'이에요. 그만큼 교육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속기가 단순히 기록만 남기는 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속기의 발전방안 모색에 열정과 애정이 넘달랐던 차은영 과장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속기사에 대해 탐구하다!

### 홍 보 부

봄기운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한 3월의 어느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속기사분들을 만나기 위해 목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검찰청사 안에서 잔뜩 긴장해 있던 홍보부 기자들을 환한 미소로 맞아 주신 남부지검 여성아동조사팀의 장현아 팀장님 그리고 이세희 속기사님과과의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부** 우선 먼저 각자 속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현아** 어릴 때 컴퓨터 자판 치고 이런 것을 되게 좋아했고 또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우연히 신문에서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기사를 처음 봤는데 '이런 흥미로운 직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아 가지고 학원에 등록해서 속기를 배우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한창 속기에 빠져 있을 때는 라디오를 듣거나 뉴스를 보거나 그리고 길거리의 간판들을 보면 머릿속에 속기 자판이 떠오르면서 속기로 다 쳐지고, 그렇게 재미있어 하면서 배웠거든요. 또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잘한다고 해 주시고 하니까 더 열심히 했어요.

지도 처음에는 국회속기사가 꿈이어서 6개월 동안 노랑진에 있는 학원에도 다니면서 공부하고 했는데 그해에 공고가 안 나는 바람에 계속 공부할 자신이 없어 포기하고 자막방송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막방송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2008년 말에 검찰속기사 공

고가 처음 났는데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도전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합격해 2009년 2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세희** 부티디자인학과를 나와서 네일아트 쪽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 일이 평생 직업으로는 아니겠다 싶어서 미래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지인으로부터 속기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속기를 배울 때 저와 너무 잘 맞고 재미있어서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터스टे노 결선에도 진출하고 의회와 속기사무소, 자막방송, 프리랜서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속기 경력을 쌓아 2015년 2월 남부지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부처 장현아 팀장님, 이세희 속기사님

**홍보부** 검찰속기사의 업무와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장현아** 검찰속기사의 주 업무는 영상녹화 조사의 실시간 속기와 조사 과정 중에 제출되는 녹음 파일들을 녹취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는 영상녹화 때문에 채용이 된 것이니까 개개인의 실시간 속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정에서 진술 변복의 우려가 있는 사건의 피의자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복 조사 방식을 위해 영상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영상녹화실 안에서 직접 검사님이 조사를 하고 저희는 그 옆에서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속기를 합니다. 조사 과정은 고도의 심리 싸움이고 흐름도 있고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해서 조사 중에는 속기사의 교대 없이 한 명의 속기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조사실

조사가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속기사는 오타 정도만 수정하고 바로 문서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피조사자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간인 후 서명날인을 받아 기록으로 편철합니다.

이외에 녹취 업무로는 주로 사건 관계인들이 녹음한 통화 녹음이나 대화 녹음, 구치소의 절전 녹음, 검사님·계장님들이 전화 조사로서 녹음하는 통화와 영상녹화 조사의 녹화 CD를 보며 속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검사실에서 속기사실로 의뢰를 하고 팀장님 제가 그 의뢰를 받아서 각 속기사들에게 배당해 합니다. 그래서 네다섯 명이 나눠서 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 검찰속기사의 자격 요건과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장현아** 저희는 임기제 공무원하고 공무원 속기사 두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2009년 당시에는 28명을 5년 임기의 7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았는데 속기사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속기사 증원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의 TO를 늘리기가 힘들니까 인력 충원의 측면에서 좀 더 용이한 공무원 속기사로 증원이 되었고 지금 전국 청에 공무원 속기사는 78명, 임기제는 28명 해서 총 106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 28명으로 시작해서 정말 많이 늘었지요.

임기제 공무원 속기사의 자격 요건은 한글속기 자격증 1급 소지자여야 하고 8

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속기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속기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고요. 공무원 속기사의 자격 요건은 한글속기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인데 아무래도 실무 경험이 있거나 속기 분야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부** 검찰속기사로서 갖춰야 할 능력이나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현아** 제일 첫 번째는 역시 실시간 속기 능력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는 피조사자의 답변을 속기사가 놓쳐서도 안 되고요, 잘못 듣고 다른 단어로 치거나 하면 조사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나는 언제 어디서든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녹취 업무에서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작성되어지고 내 도장을 찍음으로써 녹취록이 완성되면 기록으로 편철이 되기 때문에 작성한 녹취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그냥 무조건 듣고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내용을 치고 있는지 문맥이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속기사들이 다 갖춰야 될 자세인 것 같아요.

**이세희** 예를 들어 '치었다'와 '치었다'를 구분해서 쓰지 않으면 한 곳 차이로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한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시간 속기 때 마바바로 적용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홍보부**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장현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급 살 여자의 성폭행 사건 조사

를 위해 속기 장비를 들고 해바라기센터로 직접 갔던 기억이 있어요. 겨울 유리벽 너머에서 상담관과 피해자의 대화를 이어폰으로 들으며 속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아이도 너무 어리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떨리고 안타까워서 집중해서 한 자, 한 자 속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에 여성·아동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서 수도권 지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따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세희** 다른 범죄들보다도 성폭행 범죄 사건이 정말 많거든요. 영상으로 성폭행 사건이 들어왔는데 그 영상 속 소리를 들으며 녹취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속기를 하면 작은 소리여도 더 잘 들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잘 들으려고 영상의 해상도를 높이면서까지 보면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때는 검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니다.

**홍보부** 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팀장님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장현아** 저희 속기사팀은 정말 팀워크가 좋아요. 다들 잘해 주고요. 같은 사무실에서 후시라도 켜고려운 사람이 있거나 하면 일하기도 힘들고 출근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잘 지내려고 서로서로 배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또 저를 팀장으로 믿어 주고 잘 따라와 줘서 저는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저는 우리 다섯 명 이대로 죽 정년 퇴직 하는 게 꿈입니다.

**홍보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장현아** 처음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저의 속기사로서의 인생을 한번 죽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열심히 잘 살아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1기 검찰속기사 동기들이 지금 한 11년 차 되었는데 열 명 남짓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십 년 넘는 시간 동안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기까지 고생 많았고 동기들에게 너무너무 잘했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이세희**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친구 세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인터뷰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전국에 계신 모든 속기사분들이 불안에 많이 떨고 제일 텐데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 소독도 잘하셔서 다 같이 이겨 내고 하루빨리 걱정 없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신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의 장현아 팀장님과 이세희 속기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9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홍 보 부

### I. 교육 개요

- 대상: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 100인
- 기간: 2019. 4. 8.(월) ~ 4. 10.(수) [3일간]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II. 교육 일정

날짜 시간	4. 8.(월)	4. 9.(화)	4. 10.(수)
09:30 ~ 12:00	등록 (10:00~10:30)	회의록 작성 실무 I -의회용어와 회의록 작성-	의회 회의록과 한글 맞춤법
	입교식 및 과정안내 (10:30~10:50) 국회속기사와의 대화 (11:00 ~ 12:00)		
12:00 ~ 13:30	점 식		
13:30 ~ 15:20	헌법 개정 논의	회의록 작성 실무 II -비공개 회의록 관련-	지방자치법의 이해
15:40 ~ 17:30	헌회의장 참관	지방의회 회의운영론	수료식 (15:20~)

### 1. 지방의회 교육 1일 차(4월 8일)

지방의회 교육 1일 차에는 등록 및 입교식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손숙자 의정기록1과 서기관과의 국회속기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김영필 국회고성연수원 교수의 헌법 개정 논의 및 본회의장 참관이 있었다.

### 2. 지방의회 교육 2일 차(4월 9일)

지방의회 교육 2일 차 오전에는 윤승희 의정기록1과 사무관의 '회의록 작성 실무 I -의회용어와 회의록 작성'이라는 강의를 있었고, 오후에는 이규진 의정기록1과 사무관의 '회의록 작성 실무 II -비공개 회의록 관련' 강의와 정명호 의회의 교정책임의관의 '지방의회 회의운영론' 강의를 있었다.

### 3. 지방의회 교육 3일 차(4월 10일)

지방의회 교육 마지막 날 3일 차 오전에는 김혜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의 '의회 회의록과 한글 맞춤법' 강의를 있었다. 오후에는 홍선기 국회고성연수원 교수의 '지방자치법의 이해' 강의가 있었고 이후에 수료식을 끝으로 본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 III. 지방의회 속기사와의 인터뷰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마지막 날 오전 강의를 끝나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손정록 주무관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홍보부** 교육은 어떠셨나요?  
**손경록** 수업도 유익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더구나 국회에 한 번쯤 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 재밌고 좋았습니다.  
**홍보부** 교육은 어떤 계기로 신청하게 되었나요?  
**손경록** 사실은 언젠가 가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선배님께서 갔다 오라고 추천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홍보부** 총 몇 분이 오셨나요?

**손경록**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총 4명 왔습니다.

**홍보부** 제일 인상 깊었던 강의는 무엇인가요?

**손경록** 첫날 했던 국회속기사와의 대화가 제일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각 지방의회의 사정도 알 수 있었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나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대개 비슷한 것들을 고민하시더라고요.

**홍보부** 작년에도 이 과정이 제일 반응이 좋더라고요.

**손경록** 사실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람 많은 데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듣고만 있었지만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홍보부** 다음번에 또 오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교육들이 의회 실무에는 도움이 되었나요?

**손경록** 강의 내용 자체는 유익하고 재밌었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에 반영이 되려면 저희 같은 실무직원들보다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처럼 높은 분들이 오서

## 제53회 정기총회

대한속기협회는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18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정속 총무재정이사회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및 성원보고가 있었고, 제27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입상자는 금상 김명진 회원, 은상 정지은 회원, 동상 최은혜 회원으로 시상은 이주성 회장이 해 주셨다.

다음으로 이주성 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김덕진 이사장이 회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장을 대리하여 의장단에 등단해 참석한 귀빈들을 소개하였다.

이후 회의는 김덕진 이사장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먼저 제234차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새로 선임된 이사를 소개하였다. 이동준 총무재정이사장이 영전으로 인해 사임하여 정속 회원이 신임 총무재정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렸다.

다음으로 최무보고를 이의 없이 접수하고 통과시킨 다음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19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김덕진 이사장으로 부터 결산서 설명을 들은 후 김점동 감사의 감사보고를 듣고 이에 대해 전 회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이

서 같이 들으시면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후배급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열악한 지방의회 속기직들은 저희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부** 내년은 아니더라도 2년 단위로 자주 오시더라고요.

**손경록** 예, 그렇게 많이들 가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속기직들의 형편이 많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부** 혹시 아쉬운 점이나 향후 추가했으면 하는 과정이 있다면요?

**손경록** 제가 생각한 것은 소수면 각자 좀 더 진중하게 얘기를 많이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원도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면으로 각 의회가 마라는 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써서 제출하면 강사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답변도 해 주시고 개선 방안도 얘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홍보부** 여태 교육 들으면서서 느껴졌던 바나 소감 한마디 해 주세요.

**손경록** 속기직 환경은 국회가 타 지방의회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부러웠어요. 그래서 속기직만의 노력이 아니라 속기직들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타 부서나 의원님들이 많이 알아주셔서 업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의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는 후 이에 대해 전 회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세 번째 부의안건인 기타 사항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이상 3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53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 편집후기

속기서기보 시보를 댄 지 채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주주님을 따라 “속기계”에 발을 디뎠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열정이 넘쳤을 테지만요, 지금은 잘하려는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시간을 성실하게 지켜 갑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멋진 속기계 56호가 나왔습니다, 홍보부 기자들의 노력에 기대서요. 감사합니다.

- 김영중

두 번째 속기계 편집 참여인 만큼 각오도 남달랐고 열심히 하였지만 아쉬움은 항상 남는 건가 봅니다.

올해에도 속기계가 협회와 회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매선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속기계를 통해 속기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니다.

홍보부 이사님, 기자님들과 함께여서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유진

벌써 홍보부 기자로서 참여한 네 번째 속기계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이번 속기계는 다른 때보다도 더 인터뷰에 충실했던 속기계였던 것 같습니다. 속기인들의 생생한 경험과 생각들을 곁에서 듣고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올 초부터 때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히 일상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주

55호 속기계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6호 편집후기를 쓰게 되네요.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인터뷰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알차고 꽉 찬 속기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사진

어느새 두 번째 편집후기입니다. 속기계를 만들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홍보부 선배님들 덕분에 수월하게 속기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홍상현

두 번째 속기계인데도 여전히 떨리고 설레고 또 두근두근 합니다. 속기계 출판을 위해 속기에 대해 고민하고 또 많은 속기인들을 만나면서 저 역시 '속기'에 더 많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부심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특히 많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책 한 권이 나오기 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신 홍보이사님과 홍보부 선배님들 그리고 제 56호 속기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디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보람

### 투고를 바랍니다

속기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장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장점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 내 실 곳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홈 페이지 www.k-steno.com  
 이 메 일 khmj888@assembly.go.kr  
 내 용 표지 그림 · 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 회비 납부 안내

회 비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원)  
 협 회 발 전 기 금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보내실 곳

회 비 농협 301-0160-1418-81 대한속기협회  
 협 회 발 전 기 금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 제56호 속기계

발행 2020년 6월

발행인 이주성  
편집인 김영중  
기자 이우진, 김진주, 이서진, 홍상현, 이보람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대표인·인쇄 동국상사 (02)362-3851  
홈페이지 <http://www.k-steno.com>

비매품



